

## 「강 어귀에 섬 하나」에 나타난 욕망과 환상성 연구

권경아\*

### -차 례-

1. 서론
2. 탈주를 꿈꾸는 욕망
  - 2.1. 욕망을 부르는 환상성
  - 2.2. 욕망의 실체
3. 환상의 현실화
4. 결론

---

\*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조교수

## [국문초록]

이인성의 소설집 『강 어귀에 섬 하나』는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인 「강 어귀에 섬 하나」는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편 「강 어귀에 섬 하나」에 나타난 욕망과 환상성을 살펴보고 이인성의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가 욕망에 대한 탐색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소설집 『강 어귀에 섬 하나』는 이러한 작가의 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강 어귀에 섬 하나」가 소설집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강 어귀에 섬 하나」는 주인공이 매개적 공간인 ‘그 집’에서 ‘그녀’를 만나는 31일간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그 집에서 억압되어 있던 욕망은 서서히 깨어나고, 그러한 욕망은 끊임없이 세포분열하는 아메바와 같이 복합적으로 증식한다. 욕망의 실체를 찾아가는 과정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욕망의 실체는 곧 ‘나’의 실체가 된다.

욕망은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상징이다. 그러나 욕망은 현실 속에서는 많은 억압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한 욕망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환상을 매개로 설정하고 욕망을 찾아야 한다. 즉 환상을 통해 현실에서는 규명하기 어려운 욕망의 실체를 찾고 있는 것이다. 환상성은 환상적 공간인 그 집과 그녀를 비롯해, 환상성을 부르는 장치로 해질 무렵이라는 밤 시간과 처용설화, 그리고 행갈이 형식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인성의 소설집 『강 어귀에 섬 하나』는 ‘메마른 강줄기’, ‘강 어귀에 섬 하나’, ‘강 어귀 바다 물결’의 3부로 구성되어 강줄기가 섬에 이르러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완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욕망’의 형식이며 이 글의 분석 대상인 「강 어귀에 섬 하나」는 이 흐름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욕망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탈주, 욕망, 환상성, 증식, 현실화, 매개적 공간, 매개

## 1. 서론

이인성의 소설집 『강 어귀에 섬 하나』는 ‘매마른 강줄기’에 「유리창을 떠도는 벌 한 마리」, 「무덤가 열입굽 살」, 「문밖의 바람」, 「편지 쓰기」 4편, ‘강 어귀에 섬 하나’에 「강 어귀에 섬 하나」 1편, ‘강 어귀 바다 물결’에 「순수한 불륜의 실험」, 「마지막 연애의 상상」 2편, 총 7편의 단편이 3부로 구성되어 있다.<sup>1)</sup> 이 중에서 「강 어귀에 섬 하나」는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편 「강 어귀에 섬 하나」에 나타나는 욕망과 환상성을 살펴봄에 이인성의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는 욕망에 대한 탐색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인성의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는 욕망에 대한 탐색이고 이 작품집은 이러한 작가의 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단편 「강 어귀에 섬 하나」의 분석과 고찰을 통해 소설집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인지를 규명하고 이인성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강 어귀에 섬 하나」는 ‘처용 환상’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또한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정현종의 「섬」이라는 시를 옮겨놓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두 줄의 시는 이 작품의 전체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섬이라는 환상을 추구하나 그 섬은 사람들 사이에, 즉 현실에 있는 공간인 것이다.

「강 어귀에 섬 하나」에서 주인공이 매개로서의 그녀를 만나 환상의 섬으로 가는 과정은 욕망의 실체를 규명하면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욕망을 일깨우는 매개인 환상성이 대두될 것이고 그러한 환상성을 통해 드러난 욕망의 실체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의 실체를 통해 도달한 환상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 주인공이 어떠한 과정으로 ‘나’를 찾게 되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장연희와 정은경의 연구 또한 「강 어귀에 섬 하나」에 나타나는 환상성을 욕망과 관련하여 접근하고 있다. 장연희는 성적 욕체(욕망)가 서사 구성의 동력이 되고 있으며, 욕망이 내밀한 존재적 질문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과 아울러 욕망을 체현하는 물질적 상징들을 고찰하고 있

1) 이인성, 『강 어귀에 섬 하나』, 문학과지성사, 1999.

다.) 또한 정은경은 이인성의 「강 어귀에 섬 하나-처용환상」은 작가의 정신적 무의식에 자리잡은 욕망의 환상무대를 펼쳐보이고, 카니발적 욕망의 수행을 통해 현실 너머의 초월적 욕망의 세계와 도취와 향락의 예술 세계를 탐색하고 있는 작품이라 평가하고 있다.<sup>3)</sup>

「강 어귀에 섬 하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인성의 문학연구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어왔고, 단편 「강 어귀에 섬 하나」나 소설집 『강 어귀에 섬 하나』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았다.<sup>4)</sup>

『강 어귀에 섬 하나』는 소설집이지만 그 구성이 하나의 장편과도 같이 총체적 관계로 엮여져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문학적 전략은 이미 발표된 『낮선 시간 속으로』와 『한없이 낮은 숨결』에서 이미 보여준 이인성 특유의 방식이다.

이 소설집은 ‘메마른 강줄기’, ‘강 어귀에 섬 하나’, ‘강 어귀 바다 물결’의 3부로 구성되어 강줄기가 섬에 이르러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완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욕망’의 형식이며 이 욕망이 인간의 성장에 따라 어떠한 변모를 거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메마른 강줄기’의 4편의 작품중에 「유리창에 떠도는 별 한 마리-철들 무렵(1)」와 「무덤가 열입곱살-철들 무렵(2)」은 ‘철들 무렵’이라는

2) 정연희, 「서술 논리로서의 욕망과 욕망의 언어」, 『현대소설연구』 제41집, 2009, 308면.

3) 정은경, 「‘처용’모티브의 현대소설 변용을 통해 본 ‘처용’의 문학적 의미 연구:김소진의 「처용단장」과 이인성의 「강 어귀에 섬 하나」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11권 제1호, 2012, 26면.

4) 이인성의 문학연구에서 노대원(「이인성 소설 『한없이 낮은 숨결』의 수사학적 연구-「당신에 대해서」의 담화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21권 3호, 2013.)과 이인표(「『한없이 낮은 숨결』(이인성, 1989)의 정신분석학적 탐색 과정 고찰」,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5집, 2024.)의 논문은 『한없이 낮은 숨결』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며, 이소연(「1980년대 전위-실험 문학이 갖는 소수문학적 특성 연구-이인성, 『낮선 시간 속으로』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29권 3호, 2021.)과 이인표(「『낮선 시간 속으로』(이인성, 1983)의 정신분석학적 서사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03집, 2024.)의 논문은 『낮선 시간 속으로』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강 어귀에 섬 하나』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논문은 장여진(「이인성 소설에 나타난 기억의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24.)과 홍정희(「이인성 소설에 나타난 환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9.)의 논문이 있다.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체가 형성되지 못한 거울단계로서의 자아의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시기의 욕망은 근친 상간과 근친 살해의 욕망을 내용으로 하는 고전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나타난다.<sup>5)</sup> 이 때의 욕망은 타인과의 소통이 부재하는 2차적 관계로서의 욕망이고 이 시기를 벗어나면 타인을 인정하는 3차적 관계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문밖의 바람」에서는 뮤직박스로 상징되는 폐쇄된 공간 속의 청년이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편지쓰기」에서는 행운의 편지를 받은 주인공이 자신이 당한 폭력을 타인에게 행함으로써 자신마저도 위기를 맞게되면서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이 좌절되고 있다.

‘강 어귀에 섬 하나’에서는 이러한 욕망의 모습을 현실과 환상이라는 대비를 통해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욕망의 실체를 규명하며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한다.

‘강 어귀 바다 물결’은 「순수한 불륜의 실험」과 「마지막 연애의 상상」이라는 2편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욕망이 단순히 개인의 억압뿐만 아니라 제도적 억압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나’와 ‘너’사이의 구분은 물론 ‘낮’과 ‘밤’의 구별, 그리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도 없어지며, 이 모든 경계 허물기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중심이 없는 사회”<sup>6)</sup> 즉 사회중심주의의 해체이다. 욕망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제도를 붕괴시킴으로써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작품집은 이렇듯 하나의 총체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욕망이 생성하고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욕망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 작품집에서 그 욕망의 실체를 가장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

5) 정연희는 앞의 논문에서 “『낮선 시간 속으로』(1983)에서 『강 어귀에 섬 하나』(1999)에 이르기까지, 그의 소설은 모든 것을 검열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회복하고 거기에 안주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아버지의 권위를 전복하고 안주의 틀을 깨고자 하는 고독한 열정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두 소설집의 차이가 있다면 『낮선 시간 속으로』는 상징적 아버지의 이름에 강하게 매개되어 있다면, 『강 어귀에 섬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찾는데 실패하거나, 상징적인 아버지의 회복과 안주를 존재의 경화(硬化)로 간주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 정연희, 「서술 논리로서의 욕망과 욕망의 언어」, 『현대소설연구』 제41집, 2009, 307면.

6) 이인성, 『강 어귀에 섬 하나』, 문학과지성사, 1999, 205면.

이 「강 어귀의 섬 하나」이다. 강줄기가 바다에 도달하는 그 경계로서 이 작품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 2. 탈주를 꿈꾸는 욕망

### 2.1. 욕망을 부르는 환상성

「강 어귀에 섬 하나」는 주인공이 매개적 공간인 ‘그 집’에서 ‘그녀’를 만나는 31일간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그 집에서 억압되어 있던 욕망은 서서히 깨어나고, 그러한 욕망은 끊임없이 세포분열하는 아메바와 같이 복합적으로 증식한다. 욕망의 실체를 찾아가는 과정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욕망의 실체는 곧 ‘나’의 실체가 된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욕망의 실체를 찾게 되는 과정과 일치하고 있다. 욕망을 찾게 되는 과정에 따라 작품을 분류하여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해질 무렵의 그 집과 섬의 묘사
- ② 그녀와의 만남
- ③ 집에 대한 세부묘사
- ④ 그녀와의 첫 흘레 - 처용탈의 제작 돌입
- ⑤ 탈들의 춤판 마당
- ⑥ 무병 치료로써 슬픈 무당과의 흘레
- ⑦ 살생 마당
- ⑧ 의도된 피흘림
- ⑨ 그녀와의 마지막 흘레 - 처용탈의 완성
- ⑩ ‘나’의 탄생과 현실로의 귀향

욕망은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상징이다. 그러나 욕망은 현실 속에서는 많은 억압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한 욕망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실이 아닌 환상을 매개로 할 수 밖에 없다. 이 작품에서

는 이러한 환상을 매개로 설정하고 욕망을 찾고자 한다. 즉 환상을 통해 현실에서는 규명하기 어려운 욕망의 실체를 찾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이 있는 공간은 현실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그녀가 존재하는 그 ‘집’은 환상으로 가는 길목에 있으며 그녀는 그를 환상으로 이끌어 간다.

①에서 주인공은 해질 무렵 그 집을 찾는다. 집에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동쪽 끝방의 작은 창문’이다. 이 창을 통해 보이는 것은 ‘강 건너 숲’으로 숲의 모습은 흑장미 꽃잎이나 여름 나무의 잎새, 아니면 흰 눈송이로도 보이나 결국은 가을 낙엽이 뒤덮인 모습이다. 다음으로 찾는 곳이 ‘북향 베란다 앞’이다. 그곳에서는 ‘강 건너편 바위산’이 보이고 그 꼭대기에는 ‘영취루(靈鷲樓)’라는 누각이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이 보이는 ‘서쪽 끝방 창문’이 있다.

환상적 공간으로써의 집에 있는 창문은 현실과 환상을 경계짓는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한다. 즉 동쪽 창을 통해 보이는 숲은 현실을, 북쪽 베란다에서 보이는 영취루는 현실과 환상의 중간을, 그리고 서쪽 창을 통해 보이는 섬은 온전한 환상을 상징한다.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섬,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이 필요한 섬이 환상적 공간이라면, 가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는 가게되는 곳이 숲이라는 현실적 공간인 것이다.

하지만, 신비롭다면 신비롭기 이를 데 없는 그곳이 정녕 어떤 곳일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다다르게 될지 모르는 다는 느낌이 반긴 해도, 이상했다, 그런 느낌이 오는 순간

발길은 돌아섰다. (109면)

영취루의 존재는 작품의 마지막 ⑩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처용탈이 완성되고 그 탈을 벗은 뒤 독수리가 떨어뜨려 놓은 곳이 이 바위산 누각이었던 것이다. 이때 비로소 눈을 뜨고 ‘나’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로써 환상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영취루는 현실적 공간과 환상적 공간의 중간에 위치한 공간으로 “그곳은 새롭게 깨어난 말이 환상을 부르고 환상이 곧 현실인 그런 공간”(116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환상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몇 가지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환상적 공간으로써의 집에 대한 31일간의 기억은 해질 무렵에서 시작되어 한낮에서 끝난다. 이러한 시간적 설정도 환상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해질 무렵에만 찾는 집은 밤의 왕국이다. 밤이 가진 신비성과 악마성을 그 집은 가지고 있다. 어둠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흘레와 춤판 마당은 환상성을 부르는 요소인 것이다. “그림자의 형상으로 등을 휘감는 어둠, 그녀”(111면)가 촛불과 향불을 붙이면 잠자던 욕망이 깨어나게 된다.

침침한 거실, 어둠의 벽 위에

가면들은 그 어둠의 벽이 흘리는 어둠의 피가 영기며 빛어진 어떤 형상들인 양 더 진한 어둠의 굴곡을 만들며 늘어붙어 있었다. 그녀가 거실 몇 군데에 촛불과 향불을 붙이면, 가면들은 희미하게 근육을 쫄룩이며 슬그머니 눈꺼풀을 열었다. (115면)

넷째날인가 다섯째날 그녀로부터 ‘처용’이란 이름을 부여받는 주인공의 설정도 환상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명명은 단순한 이름짓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용과 처용가, 그리고 처용 설화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며 환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③의 집 묘사에서 그녀는 주인공에게 처용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거실에 망해정(望海亭)이라는 현판을 새로 건다. 그를 온전하게 처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따라 유독 향불을 심하게 피웠을까, 안개 속에서 자꾸 희미해지는 그녀를 향해, “망해정이라… 이름은 멋지네. 그렇게 바다가 그리웠어?” 바보처럼 물었다. 그녀는 “나보다도 시인이었던 자기가 더 그리울텐데, 아니야?” 되물었고, ‘시인이었던’이라는 과거형 시체가 꺾꺾깃깃 했으나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모호한 추억을 불렀다. “그림자면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떠오르질 않는걸.” “천 백 년 전의 기억이니까.” 그녀의 단정에 얼떨떨해져서, 간신히 내뱉는다는 게

“뭐라구?”였다. “언젠가는 기억나게 될거야. 그 때 자긴 바다에서 왔어.”(116면)

그녀와의 첫 흘레 후 그녀는 처용탈을 그의 얼굴에 만들기 시작한다. 처용탈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처용가가 울린다. “서라벌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닐다가”(147면) 탈들의 행렬을 따르던 그가 이른 곳은 그녀의 간음의 현장이었다. 그때 또 다시 처용가가 흘러 나온다.

촛불 빛을 옮기자, 그 개 옆에는 침대 매트 같은 것이 깔려 있었고 이불 더미가 덮여 있었다. 촛불 빛을 더 들이대자, 그 이불은 뒤척이고 있었는데, 오오 이불 아래로, 다리가 넷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싶어, 머리가 뻥뻥 돌고 다리 힘이 풀어져 금장이라도 무너져내릴 듯한 몸을 그 순간 지켜준 것은, 어떤 느닷없는 신들림 같은 것이었다. 저절로 부들부들 떨어대는 몸에서, 아까 미로로 들어가는 행령의 시작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시를 읊는 듯한 노랫가락이 저절로 흘러나왔던 것이다. 들어와 자리 보니 가탈이 넷이어라~ 들어와 자리 보니 가탈이 넷이어라~ 동일한 소절만이 반복되는 것도 아까와 똑같았다. (151면)

이와 같은 처용설화와 처용가의 삽입은 작품 전체에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sup>7)</sup>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형식적 기법으로 행갈이 방식의 서술이다.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대목이 아님은 물론이고, 한 문장을 서술하면서 행을 바꿔 틀어진 행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집에서는

계절이 따로 없이, 늘 가을이었다. 어찌다가 떡구름이...(108면)

등어리에서 물러난 그림자는, 그 집의 계절처럼 언제나 서늘하게

그녀를

나타냈다.“왔어?” 그 집을 세 번째로 방문해 말을 트면서부터는... (111면)

7) 정은경은 이 작품에서 처용은 “현실세계에서 억압된 욕망의 다채로운 카니발리즘, 문명 이전의 인류의 원형으로서의 ‘의식 밖’을 체험하는 문체적 인물로 상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은경, 「‘처용’모티브의 현대소설 변용을 통해 본 ‘처용’의 문학적 의미 연구」, 『한국문예창작』 제11권 제1호, 2012, 87면.

몇 층 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  
 단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지독한 열병이었다. 어찌어찌... (125면)

작품 전체가 행갈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서술방식이 바로 기존의 글쓰기 방식에서는 낯설음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 행갈이 방식이 어떻게 환상적 요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주인공이 있는 곳이 환상적 공간인 그녀의 집이라는 것에 주목할 때 확실해 진다. 주인공은 비록 환상적 공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아직은 현실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기에 환상적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곳을 묘사하는 방식은 자꾸만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다. 이러한 그의 현실적 인식을 끊어 놓으며 환상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행갈이 방식의 서술인 것이다.<sup>8)</sup>

또한 행갈이 방식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독자인 우리에게도 그 서술 방식의 낯설음을 통해 환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환상은 욕망이 자연스럽게 분출될 수 있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환상적 분위기의 조성으로 욕망은 모든 저항을 깨고 스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2.2. 욕망의 실체

주인공의 욕망은 그녀와의 만남에서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한다. ②에서 환상적 존재로서의 그녀는 주인공에게 이름을 부여한다. 이름을 부여받기 전의 주인공은 ‘그녀’에게 ‘너’일뿐이었다. 그러나 ‘너’라는 지

8) 지용신은 이인성의 『낮선 시간 속으로』를 대상으로 분석하며 이인성의 문학은 궁극적인 소설의 속성을 단언하는 수사를 배제하기 위해 스스로를 해체하고 때로 과잉 서술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 과잉 서술은 독자의 읽기 관습을 교란시킴으로써 작품이 하나의 이미지로 귀결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인성의 글쓰기 전략이 전통적인 소설 쓰기의 문법과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 지용신, 「교란하는 글쓰기, 전환사의 문학-이인성의 『낮선 시간 속으로』를 대상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9집, 2012, 246면.

칭은 그 집에 오는 수많은 ‘너’와 구별되지 않는다.

“그럼 저 섬 이름은 뭐지요?” “저 섬의 이름이 없나봐요. 그쪽처럼.” 그쪽? 그러니까 이쪽? 그래서, “그쪽의 이쪽은요?” 하고 되묻자, 이쪽의 그쪽은 갑자기 요기가 서리는 어둠의 목젢을 울려 짹짹했다. 세 번째 날, 그쪽은 이쪽을 ‘너’라고 지칭했지만

그 집에 오는 ‘너’가 워낙 많아서인지, ‘나’는 ‘나’로 구별되지 않았다. 아니 구별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아무래도 정확지 않다. 수많은 ‘너’가 수많은 ‘나’로 뒤섞여 ‘나’만의 ‘나’를 가릴 수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기보다, 애당초 ‘나’는 없었다. 그녀가 자신을 가리켜 ‘나’라 말할 때, 그 대명사는 고유명사나 다름없는, 그 집에서 오로지 그쪽 그녀에게만 해당되는 유일무이한 것이었다. (112면)

그러한 그녀가 주인공에게 처용(處容)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을 만희(滿喜)라고 명명한다. 각자의 이름이 부여됨으로써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깨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미 “삼십 개썸”의 이름을 가진 그리고 처용의 탈을 만들 수 있는 환상적인 존재로 주인공의 욕망을 분출시키는 매개적인 존재이다. 이름짓기가 곧 욕망을 깨우는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의 수명은 욕망의 실체가 규명될 때까지 만이다. 욕망의 실체가 규명되고 그러한 욕망의 확인을 통해 ‘섬’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면 버려야만 하는 것이 이름이다. 그러면 다시 버려야만 하는 이름이 왜 필요했던 것인가? 그것은 “어쩌면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이름을 지우는 길일지도”(136면)모른다.

“지금 너한테 처용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머지않아 그게 네 이름이 아니고 네 탈의 이름이 될 테니까, 머지않아 너 탈을 벗게 될거고, 그러면 이름도 내던질 수 있을 거야.” 사이. “그럴 거라면, 애당초 이름 없이는 안 되냐?” 사이. “글쎄. 이름이란 게 저리로 건너 가선 필요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필요한 거 아닐까? 뭐랄까. 저기로 가는 길을 찾는 이정표 같은 거랄까...” (136면)

이름이란 그곳에 가기 위한 이정표와 같은 것으로 그곳에서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곳에서는 필요한 것이다. ‘섬’에 다다르면 버리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다.

④에서 처용과 그녀와의 첫 흘레와 함께 그녀는 처용의 얼굴에 처용탈을 만들기 시작한다. 종이를 한 장 한 장 붙여가며 만들어지는 탈은 처용을 매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 처용은 이렇듯 매번 다른 모습으로 다른 탈과 흘레를 하며, 욕망의 분열을 경험한다. 이때 그녀가 만들어 내는 가면이란 인간 심층에 존재하는 욕망을 상징한다.

종이 한 장씩 덧입혀지며 처용탈은 매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집의 다른 탈들과는 달리 처용탈은 “아직 미완의 탈”로 주인공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던 욕망이 하나씩 드러남을 경험한다. ⑥과 ⑦에서 그녀와 주인공이 여러 개의 탈로 출판에 나서는 것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던 잠재된 욕망의 다양한 분출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의 탈이라고 해서 하나의 욕망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예의 그 제의적인 동작으로, 다시 얼굴을 빈틈없이 훑었고 또 하나의 종이 탈을 붙여 나갔다. 그리고 보니, 앉아 누워 있으면서, 전날 붙였던 종이 탈이 어떤 형상이었는지를 거울에 비춰볼 틈이 전혀 없었다는 자각이 들었다. 어쩐지. 하지만, 과연 그제 이 집을 벗어나서 보일 리가 있을까? 대답 없을 자문에 지그시 감기는 눈꺼풀 안으로 그때 영상이 되어 떠오른 소망은 다만, 그녀가 어서 제 안에 감추었던 뱀을 불러내 전날보다도 더 오래오래 두 몸을 하나로 묶고 섞는 그런 환희였다. 그 영상을 훑쳐본 듯, 그녀가 바람 소리를 냈다. “처용의 탈은 분명 아주 여러 겹이었을 거야. 여러 얼굴이 쌓여 하나가 된 거지.” 그 주문 같은 소리가 울어지는 동안

성큼, 한참 뒤의 열몇번째 날 저녁이 앞당겨져왔다.  
그날은 그녀에 대한 어떤 원망이 흥건히 배어나오던 날이었을 것이다. (127면)

여러 겹의 얼굴이 쌓여 하나의 처용탈이 되었듯이 하나의 욕망에서 또 다시 욕망이 생성된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의 욕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욕망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의 실체는 주인공이 그 집의 방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

있는 부분과 연결된다. 도대체 그 집의 방을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던 주인공은 비로써 그 방의 비밀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어기적 어기적 두 번째 홀레의 방을 찾아가는 와중에, 거미줄 같은 그 집의 공간 구조

그 집의 방의 구조가 전날의 의문을 벗긴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밤이 되면, 그 집의 방들은 아메바의 세포분열처럼 끝없이 증식하는 모양이었다. 무당탈과 끼안고 첫 문을 열자 그 방 한쪽엔 이미 어둠의 살들이 들러붙어 있었는데, 그때 다른 세 벽에서 문이 열리며 다른 탈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그래서 그 중에서 왼편 문을 열고 뒤쫓아가 보니 거기도 어둠이 들썩이고 있어, 여기도 벽마다 문이 있을까, 오른편 벽을 더듬었더니 예감대로였다. (130-131면)

그 집의 방들은 세포분열을 하며 끊임없이 증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욕망의 증식과도 같은 것이다. 라캉에 의하면 ‘욕망은 환유이다’. 욕망은 기표로 표출되기에 끊임없이 의미의 연쇄고리 속에서 지연될 뿐,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욕망은 더 나은 대체물을 다른 곳에서 끊임없이 찾으려 한다.<sup>9)</sup> 주체는 욕망을 충족시킬 것처럼 보이는 대상, 즉 대체가 가능하리라 믿는 단계, 즉 압축과 은유의 단계를 지난다. 그러나 욕망은 충족되지 못하고 다시 또 그 다음 대상으로 자리를 바꾸는 전치, 즉 환유로 구조되어 있어 끊임없이 다음 대상으로 자리를 바꿀뿐 결코 충족되거나 채워지지 않는다.<sup>10)</sup> 이 글에서 방들이 세포분열을 하며 끊임없이 증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 있다.<sup>11)</sup>

9) 아니카 르메르, 『자크 라캉』, 문예출판사, 1994, 281-283면.

10) 자크 라캉, 『욕망 이론』, 권택영 엮음, 문예출판사, 1994, 18-19면.

11) 정연희 또한 그의 논문에서 「강 어귀에 섬 하나」는 “수직적 상상력과 수평적 상상력을 통해 증식하는 욕망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욕망이 증식됨에 따라 주인공의 끝간 혼돈은 파괴의 충동과 난폭한 환상을 불러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연희, 「서술 논리로서의 욕망과 욕망의 언어-이인성의 <강 어귀에 섬 하나>를 대상으로」, 『현대소설연구』 제41집, 2009, 312면.

### 3. 환상의 현실화

그러나 이러한 욕망의 증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섬’으로 가지 못한다. 주인공이 욕망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섬’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즉 ‘섬’이라는 환상적 공간에서 온전한 ‘나’를 찾고자 하는 이유에서였던 것이다.

‘나’라는 주체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욕망을 포용하고 인정하며 그 욕망을 지배해야 한다. 그녀도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자각은 욕망을 분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주인공이 나타나면서부터이다. 비록 그녀가 주인공을 환상으로 인도하며 증식하는 욕망의 실체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이상의 곳인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녀도 주인공의 자극이 필요했던 것이다.

“분명한 건 하나뿐이야. 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 내가 나타나기 전에는 나도 늘 탈을 쓰고 있었어. 이것저것 바꿔 쓰는데 만족하면서. 그런데 내가 나타나는 순간, 내가 더 먼 데로 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이때까지의 탈들을 벗어버린 거야. 탈을 쓰고 있는 동안 없어졌던 얼굴이 살아나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의 탈들을 위해 마지막 난장을 펼쳐주는 거고.” 다시는 그렇게 늘어놓지 않을 길다란 고백에 대한 회한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그날 밤 스스로 탈춤을 추었다. (133면)

그녀는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탈을 바꿔 쓰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즉 욕망을 즐기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나’를 세울 수가 없다. ‘나’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탈을 쓰고 있는 동안 버렸던 자신의 얼굴을 다시 찾아야만 한다. 주인공은 처용탈을 쓰면서 끝없이 증식하는 욕망의 실체를 보고 경험했다. 그러나 그 실체를 확인하고는 다시 자신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처용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욕망을 경험했다면 이제 다시 처용이란 이름을 버려야 자신을 찾게되는 것이다.

이름을 버리는 것은 하나의 희생과도 같은 것이다. 섬으로 가는 의식

을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재물이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그녀는 “너는 너를 죽이고 싶었던 거야, … 그러나 죽더라도 간신히 살아날 수는 있게 죽어야”함을 주인공에게 말한다. 스스로가 재물이 되어야 함과 소생을 암시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⑧의 마지막 놀이 마당에서 처용탈은 의도된 실수로 도끼날에 얼굴을 스치게 된다. 피는 “스물 몇 겹으로 쌓인 종이탈을 서서히 적셔”(p.145)나가고 있으나 둘레는 마지막 난장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의 말로 이러한 실수가 의도적인 의식중의 하나였음을 깨닫는다.

“탈에 피를 먹었으니 이제 다 됐어. 이게 마지막 종이 탈이야.” (147면)

⑨에서 탈이 완성되면서 처용은 마지막 긴 행렬을 따라가게 된다. 그러나 이 길은 믿음으로 가야하는 길이었다.

“자, 이제 처용도 행렬을 따라가야 해. 잘 들어. 행렬이 흩어지고 나면, 아주 길고 외로운 순례가 될거야. 서른 밤은 걸리겠지. 하지만 결국, 넌 돌아와. 돌아올 거야. 믿어야 해. 그러면…” 그러면 돌아올 그 자리가 바로 그 섬일까? (148면)

그러나 혼자 남게 된 처용에게 의혹이 자리하게 된다. 처용가가 흐르기 시작하고 무한 증식하는 그 퍼즐의 방들에서, 매번 맹목적으로 문을 하나씩 선택해나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혹이 들면서 그러한 의혹은 그녀에 대한 의혹으로 옮겨간다. “그녀는 나를 미로 속에 영원히 가두려는 것인지도!”(149면)모른다는 생각에 처용은 가던 길을 돌아 나온다. “의혹이 이렇게 믿음을 이기는가 탄식하며”(149면)돌아온 처용은 그녀의 간음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들어와 자리 보니 가랄이 넷이어야”라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처용이 의혹을 이기지 못했음이 드러난다.

“둘은 내 다리고 둘은 네 다리였어. 그 뺨, 내가 품고 있던 너…” 심한 자괴함이 들었으나, 뭐든지 반응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아 주섬주섬 말을 삼켰다. “하

지만, 탈이 다 끝났는데도 년…” “네 탈은 끝났지. 하지만 내 탈은 이제 겨우 이름을 찾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 였는데…” 말을 못 맺고 있다가, 다시 “그래야 나도 같이 갈 것 아니야, 그 섬에” (152면)

처용의 의혹이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이다. 처용의 의혹은 그녀가 섬으로 가는 첫 단계인 탈만들기를 방해함으로써 그녀를 섬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그 집에 머물게 한다. 이제 막 시작된 그녀의 종이 탈에 습기가 번져 눈가의 먹물선은 얼룩이 되어 가고 있었다. ⑩에서 그녀와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흘레와 함께 그때까지 완벽하게 얼굴에 붙어 있던 처용탈이 그대로 떨어져 나간다. 이름을 벗어버리고 그는 이제 독수리에 의해 그 섬의 늪에 빠져들고 다시 들어올려진다. 독수리가 조각하듯 쪼아 얼굴을 풀어준다. 그는 이제 섬에 도달하고 ‘나’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나’가 있었다면, 아마도 그때의 그 눈이야말로 바로 ‘나’였을 것이다. (155면)

그러나 ‘나’가 던져져 있던 곳은 절벽 위의 누각으로 영취루였다. 그 집의 북쪽 베란다에서 보이는 영취루는 현실과 환상의 중간을 상징한다. 영취루는 현실적 공간과 환상적 공간의 중간에 위치한 공간으로 “그곳은 새롭게 깨어난 말이 환상을 부르고 환상이 곧 현실인 그런 공간”(116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가 환상이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 현실은 환상을 통해 ‘나’를 찾고 다시 돌아온 현실인 것이다. 그 앞에 남겨진 것은 환상의 새가 떨어뜨리고 간 ‘새알 하나’로 환상의 잔재뿐이다. 이로써 ‘섬’이라는 환상이 필요했던 것은 곧 ‘나’를 찾기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진다.

#### 4. 결론

이인성의 소설집 『강 어귀에 섬 하나』는 「메마른 강줄기」, 「강 어귀

에 섬 하나」, 「강 어귀 바다 물결」의 3부로 구성되어 강줄기가 섬에 이르러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완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욕망’의 형식이며 이 글의 분석 대상인 「강 어귀에 섬 하나」는 이 흐름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욕망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욕망은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상징이다. 그러나 욕망은 현실 속에서는 많은 억압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한 욕망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환상을 매개로 설정하고 욕망을 찾아야 한다. 즉 환상을 통해 현실에서는 규명하기 어려운 욕망의 실체를 찾고 있는 것이다.

환상성은 환상적 공간인 그 집과 그녀를 비롯해, 환상성을 부르는 장치로 해질 무렵이라는 밤 시간과 처용설화, 그리고 행갈이 형식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 환상성을 던고 욕망의 실체가 규명된다. 욕망은 미완성의 처용탈이 인간내면의 복합적인 욕망의 양상을 상징하듯이 끝없이 세포분열하며 증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의 증식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섬’으로 가지 못한다. 주인공이 욕망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섬’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즉 ‘섬’이라는 환상적 공간에서 온전한 ‘나’를 찾고자 하는 이유에서였던 것이다. ‘섬’에 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시키며 이름을 버려야 한다. 피의 희생을 한 후에 비로소 처용탈은 완성되고 완성됨과 동시에 허물을 벗듯 탈을 벗게 된다. ‘섬’에 가기 위해 처용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이제는 다시 ‘섬’에 가기 위해 처용이라는 탈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섬’을 경험한 ‘나’는 이 때서야 ‘나’를 온전하게 ‘나’로 인식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 서 있는 공간이 현실과 환상의 중간에 위치한 절벽 위의 누각 ‘영취루’라는 것은 환상의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환상의 ‘섬’이 필요했던 것은 현실 속에서 내가 진정한 ‘나’로 서기 위해서임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강 어귀에 섬 하나」는 끊임없이 증식하는 욕망의 실체를 찾아가는 ‘나’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욕망은 환상을 매개로 하여 끊임없는 연쇄고리 속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강 어귀에 섬 하나」는 욕

망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 A Study on Desire and Fantasy in 「The One Island at the Mouth of the River」

Kwon, Kyung A(Catholic Kwandong University)

Lee In-seong's short story collection 『The One Island at the Mouth of the River』 consists of three parts, and 「The One Island at the Mouth of the River」 the subject of this paper's analysis, is located at the center of it.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desire and fantasy in the short story 「The One Island at the Mouth of the River」 and consider that the world shown in Lee In-seong's works is an exploration of desire. The short story collection 『The One Island at the Mouth of the River』 can be said to intensively show this world of the author. Therefore, it would be meaningful to clarify the position of 「The One Island at the Mouth of the River」 in the entire collection of short stories.

「The One Island at the Mouth of the River」 depicts the protagonist's 31-day journey in “that house,” a mediating space, where he meets “her.” The suppressed desire in the house gradually awakens, and such desire multiplies complexly like an amoeba that constantly divides cells. The process of finding the true nature of desire is the process of finding ‘me’, and the true nature of desire soon becomes the true nature of ‘me’.

Desire is a symbol that proves that I am ‘me’. However, desire does not reveal its true nature in reality due to many suppressions. In order to draw out such desire, we must set up fantasy as a medium and find desire. In other words, we are

finding the true nature of desire that is difficult to identify in reality through fantasy. Fantasy is expressed through the fantasy space of that house and her, as well as the night time at sunset, the Cheoyong story, and the form of Haenggal.

Lee In-seong's short story collection, 『The One Island at the Mouth of the River』 consists of three parts: “A Dry River,” “An Island at the Mouth of the River,” and “Sea Waves at the Mouth of the River,” forming a complete structure in which the river reaches the island and flows into the sea. And what drives this flow is the form of ‘desire’, and the subject of analysis in this article, 『The One Island at the Mouth of the River』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is flow and can be said to depict the process of finding the true ‘self’ by vividly showing the true nature of desire.

**Key words** : Escape, desire, fantasy, proliferation, actualization, mediating space, mediation

## [참고문헌]

### □ 기본자료

이인성, 『강 어귀에 섬 하나』, 문학과지성사, 1999.

### □ 단행본

아니카 르메르, 『자크 라캉』, 문예출판사, 1994, 281-283면.

자크 라캉, 『욕망 이론』, 권택영 엮음, 문예출판사, 1994, 18-19면.

### □ 논문 및 기타 자료

김영현, 「處容모티프의 현대적 變容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0.

노대원, 「이인성 소설 『한없이 낮은 숨결』의 수사학적 연구-「당신에 대해서」의 담화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21권 3호, 2013.

이소연, 「1980년대 전위-실험 문학이 갖는 소수문학적 특성 연구-이인성, 『낮선 시간 속으로』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29권 3호, 2021.

이인표, 「『한없이 낮은 숨결』(이인성, 1989)의 정신분석학적 탐색 과정 고찰」,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5집, 2024.

\_\_\_\_\_, 「『낮선 시간 속으로』(이인성, 1983)의 정신분석학적 서사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03집, 2024.

장여진, 「이인성 소설에 나타난 기억의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24.

정연희, 「서술 논리로서의 욕망과 욕망의 언어」, 『현대소설연구』 제41집, 2009, 308-312면.

정은경, 「‘처용’모티프의 현대소설 변용을 통해 본 ‘처용’의 문학적 의미 연구:김소진의 ‘처용단장’과 이인성의 「강 어귀에 섬 하나」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11권 제1호, 2012, 26면, 86면.

지용신, 「교란하는 글쓰기, 전환사의 문학-이인성의 『낮선 시간 속으로』를 대상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9집, 2012, 246면.

홍정희, 「이인성 소설에 나타난 환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9.